

昭和八年三月一日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五月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한글

進星

第七號



本號要目

- 用言의 活用に 關한 論
- 代名詞에 對하여
- 綴字法의 理論과 實際.....
-

朝鮮語學會編輯

朝鮮語學會編輯

— 歷史的會議 —



朝鮮語綴字統一委員會記念攝影

(第296頁記事參照)

目 次

◇ 플이씨의 끝바꿈에 관한論.....	崔 鉉 培.....	265)
◇ 대명사에 대하여	鄭 烈 模.....	(275)
◇ 綴字法의 理論과 實際 (下).....	李 鉞.....	(279)
□ 漁夫歌 (俗樂歌詞).....		(292)
□ 壯快한 南將軍 (逸話)	金 克 培.....	(293)
□ 俗談語彙 (1).....		(295)
● 本會 記事		(296)

풀이씨의 끝바꿈에 관한論

(用語의 活用論)

崔 鉉 培

1. 序 論——分析에서 綜合으로.
2. 本 論——우리말의 풀이씨의 끝바꿈.
3. 異說批評——朴勝彬님의 段活用說를 駁함.

第一. 序論——分析에서 綜合으로

(一) 朝鮮말의 文法的 發展의 階段

조선말이 배달겨레(朝鮮民族)의 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리와 그 신기러운(神妙한) 구실(職能)을 비릇은지는 아득한 太古의 일일 것이다. 줄잡아도 朝鮮에 歷史있는 지 半萬年의 長久한 歲月에 조선말은 수없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꾸자꾸 자라났으며 피어났다. 그리치마는 이 조선말이란 良田沃土에는 五穀이 豐登하고 百果가 이들이 들 하것마는, 無心한 사람들은 이 沃土를 等閑視하야, 이것을 뒤지며, 갈며, 매어서 그眞價靈能을 發揮시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었다. 그래서 조선말은 거의 自然의 荒蕪 그대로 放置되어 있었다.

李朝初葉에 이르러 世宗大王께서 한글을 지어 내심으로써, 조선말이 그 굴러갈 바퀴를 얻었으며, 날아 갈 날개를 얻은 것이었다. 그리치마는 人心이 아즉도 文化的 自覺이 不足하야서, 이 바퀴와 날개로써 이 말을 운전하지 못하였다.

이미 靈妙한 機能을 안에 감춰 있고, 또 精利한 引擎——한글——을 갖춘 조선말이 그대로 荒野에 永久히 等棄되어 버리고 말 것이 아니었다. 開拓者의 손은 드디어 이 沃土에 버티고 말았나니, 그는 곧 한힉셈 스승님이다. 이 數千年의 荒蕪를 開拓하라 하매, 그의 일은 저저로 땅이로 파고, 가래로 뒤지고, 독맹이를 끌라 내고, 흙덩이를 부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周先生의 하신 일은 조선말의 分析的 研究였다. 이제 조선말을 그 文法的 方面으로 보아 大畧 三 時期로 가들수 있나니

第一期. 檀朝도부터 高麗末까지는 形成發育時期니, 이 時期에는 우리말을 완전히 적어 낼만한 글자가 發明되지 아니하야, 조선말은 아즉 쓰인말(書面言語)이 되지 못하고, 다만 소리말(口頭言語)이 되어, 입에서 귀로, 겨우 日常의 必要한 用務를 分別하는 구실을 한 따름이었다. 이 동안에 無數한 가운데에 끊임없이 말의 법이 形成되며 發育되어 온 것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 古代 文字는 아득히여 지금 考證할 實跡이 없고, 新羅以來 吏讀文字로 쓰인 鄉歌文學은 조선말이 소리말에서 쓰인말(書面言語)로 건너 가라는 準備가 始作된 것이라 할 것이다.

第二期. 李朝初葉 世宗大王께서 한글을 지어 낸 때로부터 甲午更張 以前까지의 約



四百五十年 동안은 長成確立時期니, 이 6818071 이 비로소 제에게 가장 適合한 表記手段을 얻어서, 소리말에서 쓰인말에 轉換되니, 말로서는 內外兩面의 形態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동안에도 아즉 民族的 自覺이 도저히 못하고, 漢字의 勢力 때문에 朝鮮말은 소리말에서나 쓰인말에서나 다 自由로운 發達을 大成하지 못한 것은 큰 遺憾되는 事實이다. 그러키는 하지마는 朝鮮말이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이 時期에 쓰인말로 成長確立한 것만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第三期. 甲午更張으로부터 最近 即 一九二〇年代末(代는 길)까지 大畧 四十年間은 分析的 研究時期니, 이 時期에 들어서 朝鮮말이 비로소 쓰인말로서의 實社會의 多方面의 文化的 任務를 遂行하게 됨에 따라, 말을 적는 사람은 大體로 多少間 朝鮮말의 分析的 研究에 致意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時期의 가장 卓越한 代表者는 앞에도 말한 周時經 先生이다. 先生의 平生 勞作은 한말로 하면 朝鮮말본의 分析的 研究와 그 教育에 있었다 할 것이요, 그의 가르침을 받은 여러 사람들의 오늘날까지 既成 業績은 亦是 이 分析的 理論에 不過하다고 概言할 수 있을 것이다.

第四期. 오늘날 即 大畧 一九三〇年代로부터는 朝鮮말본의 綜合的 研究及 整理 時期니, 이 時期의 特徵은 前期에 쓰든 分析的 研究方法 대신에 綜合的 研究方法를 採用하여, 朝鮮말의 綜合的 本質을 밝혀내어, 朝鮮말본의 綜合的 理論을 세워, 朝鮮말을 綜合的으로 整理한 任務를 가진 것이라 하노라. 「分析에서 綜合으로」! 이는 바로 오늘날의 外침(슬로간, 몬도)이다.

(二) 分析의 方法의 缺陷

分析의 方法과 綜合的 方法은 어떠한 對象의 學問에서든지 다 應用될 수 있는 二種의 方法이다. 그런데 語學研究에서는 낱말을 語源的으로 分析하며 또 品詞的으로 分析하는 것으로 들어난다. 어느 程度의 分析은 반드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分析의 過度는 그 本然의 綜合的 性質을 正當히 理解할 수 없게 된다. 이를테면 물을 水素들과 酸素 하나로 쪼갤러(分析해)놓으면 물 本然의 性質을 理解할 수 없게 되나니, 곧 水素와 酸素는 다 可燃性의 것인데, 이 可能性의 元素 두가지가 합하여 된 물은 타기는 커녕 타는 불을 끄는 性質을 가진 것이니, 물의 性質을 저 可燃性의 水素 酸素로써는 到底히 說明할 수가 없다. 그러라고 해서 물을 水素와 酸素로 쪼가르는 것은 아모 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적어도 물 그것의 本然의 綜合的 性質을 理解하여, 혹은 불을 끄기에 쓰여, 혹은 먹으며, 혹은 田畠의 穀物을 기르며, 혹은 배를 뜨이며, 혹은 電氣를 이르기라 할진대, 모름지기 물 그대로 觀察하며 實驗하며 研究하며 利用할 方途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케 말함은 決코 言語研究에 語源的 品詞的 分析이 全然 必要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 그것의 本然의 綜合的 性質을 正當히 理解하여 그 便益한 利用과 圓滿한 發達을 꾀하랴면, 語源으로 가르며 品詞로 가르는 것도 그 本性을 害傷하지 아니하는 程度에 그쳐야 한다. 元來 말이란 것은 사람의 思想感情을 發表하는 것인데, 그 發表方法이 分析的임보다 綜合的이다. 낱말(單語)보다 文(文)이 먼저 생겼다는 實證的 事實은 곧 이를 傍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分析의 方法을 우리말의 研究와 整理에 應用할 것 같으면

첫째는 語源을 徹底하게 表記하려는 綴字法이 되나니, 이를러면
 「고프다」(飢)를 「굶브다」로,
 「아프다」(痛)를 「앓브다」로,
 「슬프다」(悲)를 「승브다」로,
 「울개미」를 「웁몹이」로,
 「가리마」를 「갈이마」로,
 적자 하는 따위와 같다。

둘째로는 品詞分類의 單元을 너무 적게 잡아서 僻 言語의 實感을 蔑한 細分을 하게 되나니, 이를러면

먹다, 먹어, 먹게, 먹고,
 의 「먹」과 「다, 어, 게, 고」따위는 우리의 言語生活에서 決코 截然히 分立되어 獨立的으로 理解되는 일이 決코 없전마는, 그 사이에 얼마큼의 可分性이 있다 해서, 그것을 다 各各 獨立한 씨(品詞)로 가르게 되며, 그 程度가 甚하게 되어서는

잡히시겠더라

먹이시엇겟다

의 各 音節(날내)이 다 各各 獨立의 品詞의 資格을 얻어, 이를 씨를 單位로하는 글을 적을것 같으면

잡히시겠더라

먹이시엇겟다

로 되나니, 이것이 우리의 言語生活의 實感에 어울어진 노릇이 되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그러하여 이 分析的 方法으로 나아가면, 제 單獨으로는 發音도 할 수 없는 한낱의 聲소리(子音)에까지 獨立한 씨(品詞)의 資格을 주게 되나니, 이를러면

ㄴ (「가ㄴ 사람」의 ㄴ)

ㄹ (「가ㄹ 사람」의 ㄹ)

ㅁ (「씨우ㅁ」의 ㅁ)

의 따위에까지 씨의 資格을 주었다。이 分析的 方法은 周時經 先生이 비롯하였고, 金料奉님은 얼마큼 綜合으로 나아가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朴勝彬님은 입으로는 對양 「周說」을 反對하지마는, 그 實際에 있어서는 一個 單純한 周先生의 門徒로서 그 分析的 方法을 徹底히 施行하였다。그의 朝鮮語體系一覽과 朝鮮語學講義要旨를 보면 「周說」에 있어서는 아즉 씨(品詞)의 資格을 얻지 못하였든 앞에는 보기로 말하면

「히」「시」「겟」 따위와 「口」

따위가 다 各各 獨立한 씨(品詞)가 되어 「助用詞」란 이름을 얻었다。

이와 같음은 다 分析的 方法을 應用한 結果니, 이리하여서는 到底히 우리말의 本然의 綜合的 性質을 理解하며 把握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 우리는 이 分析的 說明에 도저히 滿足할 수 없는 것이다。「分析에서 綜合으로」가야 할 것이다。

第二. 本論——풀이씨의 끝바꿈 (用言의 活用)

(一) 풀이씨의 構成

綜合的 方法은 말의 어떠한 部分에서도 適用될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顯著한 구실과 結果를 나타내는 部分은 풀이씨(用言)다。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말의 풀이씨의 끝바꿈(活用)을 論함에 當하여, 이 綜合的 方法을 쓰었노라。그런데 풀이씨(用言)에는 움직씨(動詞), 어떨씨(形容詞), 잡음씨(指定詞)의 세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보기로 움직씨 하나만을 가지고, 끝바꿈(活用)을 풀이하하고자 하노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分析的 方法을 取한 이들은 「먹다」를 「먹」과 「다」의 두 씨(品詞)로 잡고, 甚至於 「먹이시었다」를 「먹」「이」「시」「었」「다」의 다섯 씨로 잡는다。그러나 이같이 함은 分析的 理論에는 滿足을 줄는지 알수 없지마는, 現實 言語生活의 實感하고는 아득 먼 理論이 되는 것이다。그것들 사이에는 얼마큼 分析할수 있는 性質이 있음은 事實이겠지마는, 그러하고 우리가 實際로 그것을 分析的으로 使用하며 分析的으로 理解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한덩이로 쓰며 아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먹다」「먹고」「먹어」「먹으니」 따위와 「먹이시었다」 따위를 나 各各 한낱의 말 한 씨(品詞)로 잡는다。

그러나 우리도 그 한 씨의 안에서 部分과 部分이 서로 分離할수있는 狀態에 있음을 認하여 「먹」은 씨줄기 또는 줄여서 줄기(語幹 Stem, Stamm)라 하고, 「다」「고」「어」「으니」 따위는 씨끝 語尾 Termination, Eordug)이라 한다。이것을 定義的으로 말하자면 줄기(語幹)는 풀이씨(用言)의 實質的 意義를 나타내는 것이니, 變動이 없는 固定部分이요, 씨끝(語尾)은 풀이씨의 形成的 意義를 나타내는 것이니, 여러가지의 文法的 關係를 나타내기 爲하여 여러가지 形成으로 바뀌는 活用部分이다。그런데 풀이씨는 아모리 간단하드라도 반드시 이 줄기와 씨끝의 두 조각은 갖춰야 한다。

줄기는 單一한 中心觀念으로 되는 것이 풀이씨의 原形이지만, 그 詳細한 意義를 表示키 爲하여 줄기에 붙어서 그것을 돕는 것이 있나니, 이런 것을 補助語幹)이라 하나니라。그러하여 원줄기는 풀이씨의 中心觀念을 나타내고, 補助語幹)은 그 中心觀念에다가 힘 Voice. 卽 시김과 입음) 때매김(Tence 時制), 높임, 낮춤) 따위의 뜻을 더 가늘게 規定하는 일을 하나니, 이것이 우리말이 添加語인 性質을 表示하는 것이 되나니라。이를테면

- 「먹이다」의 「이」,
- 「가시다」의 「시」,
- 「먹었다」의 「었」,
- 「먹사오니」의 「사오」,

의 따위가 各 補助語幹)이다。이 補助語幹)은 그 必要를 따라 하나만이 쓰이기도 하고, 또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다섯이나 한꺼번에 쓰이기도 하나니, 이를테면

「먹 이 시 었 사오니」

에서의 같은 따위니라。

補助語幹)은 원줄기에 攝取되어서 원줄기와 함께 한낱의 줄기를 일워서, 靜的狀態를 取하는 것이 된다。이를테면

먹이시다
// 게

- // 기
- // 니
- // 고
- 먹이시었다
- // 개
- // 기
- // 니
- // 고

와 같다。

그러므로 풀이씨는 그 짜임(構成)이 簡單하거나 複雜하거나 한가지로 반드시 줄기와 씨끝의 두 조각으로 되나니, 줄기와 씨끝은 풀이씨의 필수無는 基礎要素니라。바꾸어 말하면, 풀이씨의 필수無는 基礎要素는 줄기와 씨끝이니, 이 두 조각이 具備되어야 비로소 그 뜻을 잡을 수가 있다。그러므로 이 두 조각은 아주 단 씨(品詞)로 가를 수는 없는 것이니라。

(二) 풀이씨의 끝바꿈의 법

나는 綜合的 方法를 取하여 풀이씨의 끝바꿈(活用)을 풀이한다。大體 끝바꿈(活用)이란 무엇이나? 우리는 그 뜻부터 매겨 놓아야 한다。그 뜻매김(定義)은 이러하다。

풀이씨가 文(文)에서 그 語法的 職能을 다하기 爲하여 그 語形의 끝의 部分 곧 씨끝(語尾)이 여러가지로 바꾸는 것을 씨끝바꿈 줄여서 끝바꿈(活用)이라 일컫나니라。이를테면

- 범을 잡다 (베품——敘述)
- // 잡느냐 (물음——疑問)
- // 잡자 (피임——勸誘)
- // 잡아라 (시김——命令)
- // 잡구나 (느낌——感動)

의 잡다 잡느냐 잡자 잡아라 잡구나 는 풀이(說明, 陳述)가 되어서 文(文)을 끝맺는 것이요,

- 범을 잡을 사람(어떤꼴——冠形詞形)
- // 잡은 사람(" ")
- // 잡는 사람(" ")

의 잡을, 잡은, 잡는은 다른 임자씨(體言)우에서 그것을 꾸미는 어떤씨(冠形詞)같은 일을 하는 것이요,

- 범을 잡게 되었다。(어찌꼴——副詞形)
- 범을 잡아 본다。(" ")

의 잡게 잡아는 文의 풀이가 되는 동시에 그 말에 오는 풀이씨를 꾸미는 어찌씨(副詞)같은 일을 하는 것이요,

- 범을 잡기가 쉽지 아니하다。이름꼴——名詞形)

범을 잡음이 어떠하냐 (" ")

의 잡기 잡음은 그 우의 말에 對하야는 풀이(陳述)가 되는 동시에 그 全體를 한 이름씨(名詞)같이 만들어서 그 알의 말에 對하야는 월의 임자(主格)노릇을 하는 것이요,

범을 잡고, 도라왔다。

범을 잡으니, 맘이 시원하다。

범을 잡으면, 좋겠다。

의 잡고, 잡으니, 잡으면 따위는 월의 풀이가 되어서 그 월을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말에 잇는 것임과 같으니라。

끝바꿈(活用, Konjugation)은 우에 말한 바와 같이 풀이씨(用言)에만 잇는 것이요, 임자씨(體言)에는 잇지 아니하니, 이는 모든 나라말이 다 그러하니라。勿論 임자씨(體言)가 文法的 關係를 表示하기 爲하야 그 語形을 變하는 일이 잇는 나라말이 잇기는 하지마는(우리말은 그러치 아니함) 그것은 끝바꿈(活用)이라고는 하지 아니하고, 區別하야서 펼달라짐(變形 Deklination)이라 일컬나니라。

끝바꿈(活用)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잇나니, 마침법(終止法), 검목법(資格法), 이음법(接續法)이 그것이다。

마침법(終止法)은 월의 풀이(說明, 陳述)가 되어서 그 월을 마치는 법이요,

검목법(資格法)은 풀이씨가 월의 풀이가 되는 동시에 (혹은 獨立的으로, 풀이가 되지 않고서) 그 검목(資格)을 바꾸어서 혹은 이름씨(名詞)로, 혹은 어씨씨(副詞)로, 혹은 어떤씨(冠形詞)로 되는 법을 이틀이요,

이음법(接續法)은 풀이씨가 월의 풀이가 되어서 끝맺지도 아니하고, 또는 검목(資格)을 바꾸지도 아니하고, 다른 월이나 풀이말(說明語, 陳述語)에 잇는 接續하는 법을 이틀이니라。

이 세가지 법의 낱날의 境遇를 들어 풀이함은 容易한 일이 아닌즉, 到底히 簡單한 論文의 能히 다할 바 안된다。그러므로 그것은 나의 짓는 中에 잇는 「우리말본」 들재 때에 밀우고, 여기에서는 다만 그 一覽表만을 들어 놓겠으니, 읽는이들은 參考하시기를 바란다。

(一). 마침법 (終止法)

(1). 베품팔 (敘述形)

1. 해라(아주낫홍, 極單稱); —다, —(으)니라, —(덕)라, —(으)마, —느니라, —나니라, —노라。
2. 하계 (낫홍, 單稱); —네, —(으)미세, —데。
3. 하오 (높힙, 單稱); —(으)오, —소(닿소리씨끝), —지요, —하요(—어요)。
4. 합쇼 (아주높힙, 極單稱); —니다, —느(나)이다, —이다。
5. 반말 (等外); —아(어), —지, —(으)미。

(2). 물음팔 (疑問形)

1. 해라(아주낫홍); —느냐, —(덕)냐。
2. 하계(낫홍); —(는)가, —(으)리가, —(던)가。

3. 하오(높임); —(으)오, —소(닿소리씨끝) —가요(어요), —지요。
4. 합쇼(아주높임); —니가, —느(나)이가, —(오)이가。
5. 반말(等外); —아(어), —지。

(3). 시김꼴(命令形)

1. 해라(아주낮춤)..... —(으)라, —아라(—어라, —여라, —너라, —거라。
2. 하제(낮춤)..... —게。
3. 하오(높임)..... —(으)오, —소(두루씨끝), —아요(어요), —지요。
4. 합쇼(아주높임)..... —(으)소서, —읍지사
5. 반말(等外)..... —가(어) —지。

(4). 피임꼴(勸誘形)

1. 해라(아주낮춤)..... —자, —려무나。
2. 하제(낮춤)..... —세 (—, 자오)。
3. 하오(높임)..... —(읍)시다。
4. 합쇼(아주높임)..... —(십)시다。
5. 반말(等外)..... —아(어), —지。

(5). 느낌꼴(感嘆形)..... —구나(코나), —도다。

(二). 껌목법(資格法)

(1). 어찌꼴(副詞形)

1. 첫재어찌꼴(一般)..... —아(어)。
2. 둘째어찌꼴(모양)..... —게。
3. 셋재어찌꼴(저음)..... —지。
4. 넷재어찌꼴(바람, 나아감, 수)..... —고。

(2). 어떤꼴(冠形詞形)

1. 이제..... —(으)리。
2. 이제이음..... —는。
3. 을적..... —(으)리。
4. 지난적..... —(으)리。

(3). 이름꼴(名詞形)

1. 첫재이름꼴(가터킴)..... —(으)미。
2. 둘째이름꼴(나아감)..... —기。

(三). 이음법(接續法)

(1). 매는꼴(拘束形)

1. 假定的..... —(으)면, —(으)리것같으면, —(으)리진대(뎌), —거든, —(으)리지라。
2. 事實的..... —(으)니즉, —(으)매, —(으)므로, —거늘, —(으)니지라。 —는지라, —기에, —(으)니, —나니, —(으)니까。

3. 必要的……—아야(어야),—아야만(어야만)
- (2). 안매는꼴(不拘形)
1. 假定的……—더라도, —(으)리지라도, —(으)니들, (反語接續)
 2. 讓步的……—(으)리망정, —(으)리지언정,
 3. 事實的……—지마는, —것마는, —거니와, —아도(어도), —(으)나,
—(으)나마, —(으)되.
 4. 推測的……—(으)려니와, —(으)런마는.
- (3). 벌림꼴(羅列形)
1. 때버림(時間羅列)
 - 한때벌림……—(으)면서, —(으)며.
 - 차례벌림……—고, —고서.
 2. 일안벌림(空間羅列)……—(으)며, —고.
- (4). 풀이꼴(說明形)……—는데(는바, 은바), —(으)리새.
- (5). 가림꼴(選擇形)……—거나, —든지, —(으)나.
- (6). 하람꼴(意圖形)……—(으)라, —(으)려, —고자(고저)
- (7). 목적꼴(目的形)……—(으)러.
- (8). 미침꼴(到達形)……—도록.
- (9). 그침꼴(中止形)……—다가.
- (10). 되풀이꼴(反覆形)……—락—락.
- (11). 잇달음꼴(連發形)……—자
- (12). 견중꼴(比況形)……—거든, —거온.
- (13). 끄어옴꼴(引用形)……—되, —기틀.
- (14). 더보핍꼴(添加形)……—(으)리뿐더러.
- (15). 더해감꼴(益甚形)……—(으)리스륙.
- (16). 뒤집음꼴(過去假翻形)……—던들.

이밖에 벗어난 끝바꿈음즉씨(變格活用動詞)를 따로 말하여야 하겠지마는 그것은 다음機會로 밀우고 여기에는 덜어버렸노라.

우에 벌려든 음즉씨의 씨끝(및 앞예든 도움줄기)은 벗어난 풀이씨(變格用言)의 씨끝 밖에 것은 모든 음즉씨의 줄기에 그대로 붙어 쓰임이 原理다. (끄어옴꼴과 같은, 그自體의 本質上 轉定한 음즉씨알에만 쓰일 것은 勿論 말고). 그가운데 다만 두가지의 달라지는 까닭이 있다.

(1). 첫째 하나는 그 우의 음즉씨의 끝날네(末音節)가 홀소리로 끝짐과 방소리로 끝짐을 따라서 씨끝(語尾)이나 도움줄기(補助語幹)에 달라짐이 생기는것과 안생기는것의 두가지의 다름이 생기나니; 그 달라짐이 생기는 것을 가름씨끝(區別語尾), 가름도움줄기(區別補助語幹)이라 하고, 그 달라짐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두루씨끝(共通語尾), 두루도움줄기(共通補助語幹)라 한다. 이를테면 씨끝「다」「거든」의 따위는

가다, 먹다

가거든, 먹거든

과 같이 홀소리알에나 닿소리알에나 두루쓰이는 두루씨끝(共通語尾)이요, 「니」「으니」는 그 뜻인즉 꼭 한가지지마는 그 우의 소리를 따라서 각各 쓰임이 다를 뿐이니, ㅏ 홀소리알에는 「니」가 쓰이고, ㅑ 닿소리알에는 「으니」가 쓰인다。——이러한 것이 ㅏ ㅑ를 씨끝(區別語尾)이다。그런데 홀소리알에 쓰이는 것을 홀소리씨끝(母音語尾), 닿소리알에 쓰이는 것을 닿소리씨끝(子音語尾)이라 일컫나니, 닿소리씨끝은 ㅏ 홀소리씨끝 우에다가 소리고루는 「으」를 얹어서 된 것이니라。이제 그 보기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도움줄기;—

- 1. 가름도움줄기 { 홀소리도움줄기……시
 { 닿소리도움줄기……으시
- 2. 두루도움줄기 ……………갯, 앓, 엓……

씨끝.

- 1. 가름씨끝 { 홀소리씨끝……니, 면, 마, 오
 { 닿소리씨끝……으니, 으면, 으마, 으오.
- 2. 두루씨끝 ……………거든, 다, 도다, 자.

(2). 들재는 줄기의 끝날내(末音節)가 밝은 홀소리(陽性母音)인가 어두운 홀소리(陰性母音)인가를 따라서, 한가지의 뜻을 가진 도움줄기나 씨끝이 홀소리고름(母音調和)의 法則에 依히야 그 꼴을 달리하는(ㅏ ㅑ 밝은 홀소리알에는 밝은 홀소리의 첫소리(이, 앓)가 쓰이고, 어두운 홀소리알에는 어두운 홀소리의 첫소리(어, 엓)가 쓰이는)법이 있나니, 이를테면

- 막아, 막아라, 막았다,
- 먹어, 먹어라, 먹었다,

와 같으니라。도움줄기의 밝은 홀소리알에 쓰이는 것을 밝은도움줄기(陽性補助語幹), 어두운 홀소리알에 쓰이는 것을 어두운도움줄기(陰性補助語幹)라 하며, 씨끝에도 이와 같이 밝은씨끝(陽性語尾), 어두운씨끝(陰性語尾)이라 하나니라。

(三) 綜合的 理論의 利点

나는 以上에서 綜合的 方法에 依히야 우리말의 풀이씨(用言)의 끝바꿈(活用)을 풀이하였다。이러한 綜合的 說明은 저 分析的 說明에 比히야 어떠한 다름 ㅏ 優點이 있는가。나는 이제 이에 關히야 簡單한 풀이를 물이고자 한다。

(1). 綜合的 理論은 말의 綜合的 本然의 性質에 맞는 整齊한 說明이 成立된다。우리는 말을 쓸 적에 綜合的으로 쓰는 것이지, 決코 分析的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말은 사람에게 分析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라 綜合을 要求하나니, 이는 말 그것이 本來 綜合的 性質을 가졌기 때문이다。이를테면 「먹다」는 한날의 씨(品詞)지, 決코 두날의 씨로는 서지 아니한다。

(2). 이러한 綜合的 理論은 言語의 綜合性과 一致되는 同時에, 말을 하는 사람의 思想과 關聯을 가지게 된다。그러므로 이러한 綜合的 文法은, 말의 主人이요 또 생각의 主人인 사람이 배우기에 쉬우며, 또 그 배운 知識을 實際의 言語生活에 應用하기 便利하다。다시 말하면 이러한 말본(文法)이라야 教育的 效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3). 綜合的 理論은 그 文法的 法則을 理解하기에 便利할 뿐아니라, 말과 글 그것을

理解하기에 有利하다。 이를테면

『어떠하 ㄴ 때 에 다르 ㄴ 것 우에 쓰 이 ㄴ 지 라 도 그 것 은 좋 지 못 하 오』
와 같은 分析的 記法보다

『어떠한 때에 다른 것 우에 쓰일지라도 그것은 좋지 못하오』
와 같은 綜合的 理論에 基한 記法이 훨씬 읽기와 깨치기에 便利함은 누구든지 얼른 알 수 있는 것이다。

(4). 綜合的 理論은 말의 發達에 有利하다。 말의 發達에는 한가지의 말이 끝은 그냥 지니고 다만 그 뜻이 여러가지로 번지는 일도 있으며, 또 말이 그 끝을 조금 바꾸어서 또는 다른 말과 어울려서 단 말을 이루는 일도 있다。 그러한데 分析的 說明에만 따를 것 같으면 말이 外形上으로(따라 內容上으로도) 複雜해진 發達을 이룬 것들도 도루 다 語源的으로 分析해 써야만 할 것이니, 이리해서 말의 綜合的 發達을 助長하기는 커녕 阻害함이 많을 것이다。(이러한 形式(따라 內容)의 綜合的 發達의 顯著한 例는 우리가 저 토이취말에서 볼 수 있다), 만약 嚴密히 首尾整齊하게 分析的 理論을 지킬진대, 이를테면

「다른」(他)을 「다르」(異)와 「ㄴ」으로,
「가즌」(百種, 온갖)을 「갖」(具)과 「은」으로,
「모든」(諸)을 「몬」(集)과 「은」으로,
「어름」(水)을 「얼」(凍)과 「음」으로,
「조금」(少)을 「족」(少)과 「음」으로,

와 같이 각각 두 單語로 分析하여 써야 할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귀찮은 分析인가!
또 얼마나 有利한 分析인가!

(5). 도움움족씨(補助動詞)를 풀이함에 綜合的 說明法이 꼭 有利하다。 앞사람들은 우리말본에서 아직 도모지 도움움족씨(補助動詞)를 풀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研究가 아직 우리말의 畧野에 마치지 못하고, 따라 우리말의 綜合的 有精的 關聯에서의 運用法을 說明하지 못한 點이 많다。 이제 나는 앞사람이 아직 開拓하지 못한 이 쪽(方面)의 묵말을 뒤지고저한다。(그러나 그 實際는 이 論文에서는 到底히 論及할 餘裕가 없다。) 그리함에는 꼭 綜合的 說明法을 取하여야 한다。(未完)

研究欄設置

讀者 여러분께서 우리 語文 研究에 獨特한 主張을 가지신 것이 있거든 本會 編輯部로 보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어떠한 것이든지 다 研究欄에 公開 發表코져 하나이다。

대명사에 대하여

鄭 烈 模

우리말의 대명사를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있다.

1. 人代名詞

종류 칭	존 경	보 통	대등이나대하	대 하
자 칭	저(제), 나(내)	나(내)	나(내)	나(내)
대 칭	당신, 도형	당신, 도형	자네, 그대	너(네)
타 칭	이어른, 저어른, 그어른	이양반, 저양반, 그양반	이이, 그이, 저이,	이사람, 그사람, 저사람, 저(제)
부정칭	어느어른	누구(누), 어느사람	누구(누), 어느사람	누구(누), 어느사람

2. 指示代名詞

종류 칭	사 물	장 소	방 향
근 칭	이, 이것	여기	이리
中 칭	그, 그것,	거기	그리
원 칭	저, 저것(그것)	저기(거기)	저리(그리)
부정칭	무엇(누슨), 어느것(어느)	어디	어디로

그러나 나로서 볼 적에 이 나눔에는 맘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많다. 그 까닭은 우리말을 연구할 적에 우리말을 그대로 놓고 그것의 본질을 생각하여 가지고 종류를 나누지 아니하고 남의나라말을 배워 가지고 그 남의나라말에 맞도록 억지로 맞춘듯한 느낌이 있으므로다. 무엇이 그러하냐 하면 먼저 보인 표 가운데 있는 人代名詞의 『이어른, 이양반, 이이, 이사람, 어느어른, 어느사람』 따위와 指示代名詞의 『이것, 저것, 어느것, 무슨것』 따위다. 만일 이것들이 모다 대명사라고 한다면 조선말의 대명사는 거의 한량이 없을 것이다. 이계집, 저사내, 이돌, 이나무, 이풀, 이늪은이, 이새, 이집승, 이물건, 하여 우리말의 명사라는 명사는 모다 들어다가, 그 꼭대기에 「이」「그」「저」라는 말만 부쳐 놓으면 모다 대명사가 될 것이니 웬 대명사가 그리 많을고! 이것이 모다 조선말을 알면서도 모르는데서 나온 잘못으로 안다. 아닌게 아니라 남의나라말을 배우다 보면 꼭 편리한 점이 있고 우리나라말에서 그런 예를 보지 못하는 것이 덕려 있다. 그러나 그러하고 우리가 우리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즉 우리말은 우리말의 본질을 따라 처리하면 그뿐일 것이다. 아마 外國말에서도 『This man, この人』가 代名詞 될리는 없을줄 안다.

그러면 나는 우리말의 대명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나는 우리말의 본질상 人代名

詞니 指示代名詞니 하는 구별은 없고 대명사라는 말로는 다만 「나」「너」「저」의 셋이 잇을 뿐이라고 한다。「당신, 로형, 자네, 그대」따위까지도 대명사가 아니다。先生이니 閣下니 大監이니 하는 존칭어에 지나지 못한다。그러면 所謂 指示代名詞들은 어며케 되느냐 하면 그것은 다 각각 소속이 다르다。가령,

이 그 저

이것들은 가르침언(指示形容詞——指示副體詞)이다。金料奉氏는 김덕조선말본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

요 고 조

이것들은 언씨로 잡고, 먼젓것은 대입씨로 잡은 것이 좀 피상하다。하기는,

이, 그, 저,

들은 마치 한낱 명사처럼

「이」는 이러하고

「그」는 그러하다

와 같이 쓰일 때가 잇는 것을 아울러 생각한 것으로 아나 이것은 차라리 언씨의 입씨 바람으로 볼지언정 더큰 본질을 망각하는 것은 처리상 좋지 못한 줄 안다。그래 나는

이 그 저

는 대명사가 아니라 가르침언(指示副體詞)이라고 본다。「요, 고, 조」와 같이。

그리고 소위 「장소」「방향」을 가르치는 指示代名詞들은 마침 金料奉氏의 著書가 수중에 없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으나 어렵듯한 기억으로는 金氏도 이미 그것들이 代名詞가 아니라 副詞란 것을 설파한 것 같다。선배가 이미 설파한 것이니까 다시 잔소리 할 필요가 없지마는

여기, 거기, 저기, 이리, 그리, 저리,

하는 것들이 어며케 쓰이는가를 보면 그 말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얼른 알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섰거라。

저기 가보자。

이리 오너라。

그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이것이 副詞가 아니고 무엇이라。이것을 구차하게, 이 말들이 動詞우에서 쓰일때는 「에」「로」의 도를 달지 아니한다고 주석하는 것은 좀 졸한 수단으로 볼수 밖에 없다。

다만,

「여기」가 어대냐。

「저기」가 어대냐

하여 명사같이 쓰일 때가 잇으나 이것도 副詞가 臨時로 명사노릇한 것으로 보면 그뿐인가 한다。

그리고 「누구, 아모, 어대, 무엇」따위는 흥들어서 疑問名詞라고 하면 못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과연 조선의 대명사는 漢字의 本意가 나타내는 의미 그대로 代名詞에서 「나」「너」「저」의 셋뿐이다。 이것을 各人稱으로 나누어 보면

第一人稱「나」

第二人稱「너」

第三人稱「저」

인데 다만 第三人稱이라고 하는 「저」만은 좀 피상한 것이다。 곧 第一人稱卑下로 쓸 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하여도 하는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변화한 「제」를 漢字에 익은 조선사람들은 「弟」의 音인 줄 아는 것이 웃습다。 무엇 그러케 볼테면 보아도 관계 없지마는 아버지앞에서 自己말을 할 적에 「제가」 하고 말하니 그것이 망팔아니냐 하는 말이다。 이것은 책답이다。 실상 내가 여기서 말하려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나」「너」「저」

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세말의 本形이 무엇이나 하면 누구든지 대번 「나」「너」「저」 이것이 本形이라 할 것이라。 그것은 옳은 말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것」「네것」「제것」

하여 소리가 변하니 그것은 무엇이나? 그것은

「나의것」「너의것」「저의것」

하는

「나의」「너의」「저의」

가 줄어서

「내」「네」「제」

로 된것이니 外國말格으로 부른다면 「領格」이니 「所有格」이니 하는 것에 상당한 것이다。 그것은 그럴듯한 말이다。 매우 재미있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네가」「제가」

할 적의

「내」「네」「제」

이것은 어찌 된 말이냐。

나의가=내가

너의가=네가

저의가=제가

이냐? 世上에서 말하기를 「가」로는 「主格」로라 하니 「나, 너, 저」라는 말들이 主格로 「가」와 연결할때는 그 所有格이 그대로 와서 붙는 것이냐。 그러면 다른 말에는 이것이 응용되지 못하는가? 가령,

나무의가=나무가

소의가=소가

자루의가=자루가

와 같이 될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나이가

네가=너이가

제가=저이가

와 같은 것이니 所有格의 「내」「네」「제」와는 계통이 다른 것이다.

우리말 가운데 主格을 표시하는 로가 들어 있으니 「이」와 「가」다. 그런데, 「이」는 먼저 생긴 말이고 「가」는 나중에 생긴 말이다. 日本의 古代語에 역시 「이」라는 主格도 있었다. 그것이 나중에 「가」라는 主格도 하나로 통일되고 말았다. 「이」가 옛말인 것은 무엇 例를 멀리 구할 것 없이 우리말로 된 經書吐를 보어도 안다. 孔子一曰, 孟子一曰 하고 모다 「一」이러케 내려그은 것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꾀「이」다. 지금의 우리말에서는 아무도 「孔子一」「孟子一」 하지 아니한다. 거저 「孔子가」「孟子가」 한다. 이것으로 보아도 「가」란 로가 나중에 생긴 것인 줄 알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가」「네가」「제가」

하는 것을 예전에는

나=내

너=네

저=제

이러케 말하였을 것이다. 예전까지 같것 없이 지금의 老人들도

내 장차 어찌할고

네 장차 어대도 가려느뇨

와 같은 말뼌을 쓰는이가 있는듯 하다. 그러면 예전에는 대명사의 主格을 표시할 적에 「내」「네」「제」로 쓰든 것을 뒤에 생긴 「가」를 덧붙여서 主格을 표시하게 된 것으로 볼수 있다. 그것은 지금도 경상도에서 「사람이」 할말을 「사람이(가)」 하는 것으로 보아 역측 아년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지금 흔히 쓰는,

호랑「이」, 비둘「기」, 두루「미」, 두루막「이」, 쇠돌「이」(에이름), 개똥「이」.

하는 말들의 말에 있는 「이」가 예전의 主格로가 語尾로 同化한 것인 줄로 추측되는데 거기서 우리말 버릇에 이상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 가령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적에 그 상대자가 어린애 같으면 「壽吉이가」하여 본이름 밑에 「이」를 달고 또 「가」를 부쳐서 불러도 당연하게 알지마는 그 상대자가 피차에 존경할 사람이면 「이」로 밑에 「가」를 덧붙치기를 忌避한다. 이것은 역시 尙古的 습관이라고 하겠다.

그 담으로 내가 提唱하고싶은 것은 지금 代名詞의 複雜를 말할 적에 「나」에 대하여는 「우리」라는 특수한 말이 있지마는 「너」에 대하여는 「너이」「저」에 대하여는 「저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로는 이것이 꼭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거북하드라도 이미 익은 말은 어찌는 수 없기는 하지만 만일 적당한 도리가 있으면 개조를 하는 것이 어며할가 하는 생각을 할적이 있다. 그런데 마침 忠淸道말에는 「너」의 複數로 「느」「저」의 複數로 「즈」라는 묘한 말이 있는 것을 생각하였다. 「나」에 대하여 「우리」라는 특수한 말이 있겠다 말이지, 「너」「저」에 대하여도 「느」「즈」라는 특수한 말이 있어서 무방하지 아니할가. 더욱이 歴史的으로 보아 「너이」「저이」는 그것들의 主格을 표시하는 말이었고 또 장차도 그러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을법하니, 말을 생각하는 이들의 두번 생각할 것인가 한다. (끝)

綴字法の 理論과 實際 (下)

李 鉉

B. 綴字法の 實際編

一. 綴字法の 原則的 基本態度

우에서 말한 綴字法の 理論은 主로 單語綴의 表意化가 그 理論의 骨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綴字法の 實際란 結局 그 單語綴의 表意化에 對한 實際的 方法을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原來 글이란 것은 言語의 觀念의 表示의 符號인 同時에 또한 아울러 言語의 音韻의 符號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綴字規定의 實際에 있어서 그것의 視覺的 關係와 聽覺的 關係와의 互相 牽制를 받게 된다. 따라서 絶對 表音만을 偏重하여 視覺上 眩惑을 줌도 不當한 일이고, 또한 絶對 表意만을 偏重하여 聽覺上 不調和를 줌도 不當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論述한 理論은, 言語表記에 있어서 音韻表示(從來엔 音韻表示만도 不完全히 했지만)에만 注重하던 우리도 觀念表示에도 着眼치 않으면 안 되겠다는 唱論인 것을 알아야 할지며, 單語綴 表意化에 있어 그 方法과 程度如何에 따라 하마하면 絶對 表意化의 誤謬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綴字法の 原則的 基本態度를 세우게 된다.

(一). 모든 單語는 音理와 語法에 어긋어지지 않는 表音的 表記法을 取하되

(二). 그 語綴形을 어느 程度까지 一定不變하게 固定시켜서 그것을 表意化할 것.

이러한 原則 밑에서 그 實際의 方法을 또 세우게 된다.

二. 單語綴 表意化의 方法

a. 單語의 實質部分(實詞)과 形式部分(助詞)과의 區分 表記

單語綴을 表意化함에 最上의 方法은 모든 單語마다를 그 語根을 밝혀서 實詞와 助詞와를 區分해 적는 것이다.

이를테면, 從來에,

이, 돈을, 돈에, 돈으로, 돈은

씻치, 씻츨, 씻체, 씻츠로, 씻춘

갑시, 갑슬, 갑세, 갑스로, 갑슨

압히, 압흘, 압헤, 압흐로, 압흔

밧기, 밧글, 밧개, 밧그로, 밧근

이러케 쓰든 것들과 또,

먹으며, 먹어라, 먹고

바드며, 바더라, 밧고

느즈며, 느저라, 느고

이러케 쓰든 것들과 또

검은, 검을, 검고, 검다

갓흔, 갓홀, 갓고, 갓다

눔흔,눔홀,눔고,눔다

이러케 쓰든 것들을 다 各各 語根을 밝히고 添加語說의 文法을 取하여,

돈이, 돈을, 돈에, 돈으로, 돈은, 돈

꽃이, 꽃을, 꽃세, 꽃으로, 꽃은, 꽃

값이; 값을, 값에, 값으로, 값은, 값

앞이, 앞을, 앞에, 앞으로, 앞은, 앞

밖이, 밖을, 밖에, 밖으로, 밖은, 밖

이와 같이, 또는,

먹으며, 먹어라, 먹고

받으며, 받아라, 받고

늦으며, 늦어라, 늦고

이와 같이, 또는,

검은, 검을, 검고, 검다

같은, 같을, 같고, 같다

높은, 높을, 높고, 높다

이와 같이 쓰면,

첫재는, 原則的 基本態度 (一) 에 依하여,

돈, 꽃, 값, 앞, 밖

먹, 받, 늦

검, 같, 높

들과 같이 그 語綴形이 언제나 一定不變하여 우리가 눈으로 한번 슬직 보기만 하여도 그 뜻이 선뜻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깨달도록 表意化가 잘 되며,

둘재는, 原則的 基本態度 (二) 에 依하여, 그 單語들의 讀音이 우리가 實際에 發音하는 口音과 一致되어 表音的 表記가 잘 되며,

셋재는, 亦是 原則的 基本態度 (三) 에 依하여, 이러저러 여러가지로 亂雜하게 쓰이든

「이, 치, 시, 히, 기」들은, 언제나 主格吐 「이」로만 一定해지고,

「을, 출, 슬, 흘, 글」들과,

「에, 세, 헤, 게」들과,

「으로, 초로, 스토, 호토, 그로」들과는, 언제나 關係吐 「을」「에」「스토」들로만 一定해지고,

「은, 촌, 손, 혼, 근」들은, 補助吐 「은」으로만 一定해지고,

「으며, 드며, 즈며」들은, 語尾의 接續關係를 表示하는 部分 「으며」로만 一定해지고,

「어라, 더라, 저라」들은 語尾의 命令關係를 表示하는 部分 「어라」로만 一定해지고,

「은, 혼」들과 「을, 흘」들은 語尾의 從屬關係를 表示하는 部分 「은」「을」로만 一定해

저서, 整然하게 語法의 條理에 맞게 됨과 같다。

(注意). 從來인 實詞와 助詞와들, 또는 動, 形詞의 實質部分과 形式部分과를 區別히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꽃치, 꽃출, 꽃채, 꽃츠로」들의 「꽃」은 完全한 花 뜻을 卽 「花」의 뜻을 갖지 못하였었다. 다른 것도 다 이와 같다.

b. 合成語의 合成分子의 語根表示

두개 以上の 單語가 合하여 한 單語를 이룬 것을 合成語라 한다. 그런데 單語가 合成함에는 두가지의 形式이 있다. 하나는 그 合成分子의 個個의 概念이 언제나 늘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合成分子의 個個의 概念이 全然 消滅되어 버리고 오직 合成된 全體의 概念만이 表現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便宜上 化學的 術語를 빌어서 앞의 것을 混合的 合成單語라 하고 뒤의 것을 化合的 合成語라 한다.

이와 같이, 混合的 合成語에 있어서는 各其 合成分子의 概念을 생각지 않고는 그 全體의 綜合概念을 捕捉할수 없으므로 그 各分子의 語根을 一一히 表示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아래에 적은 合成語들은 乙을 버리고 甲을 取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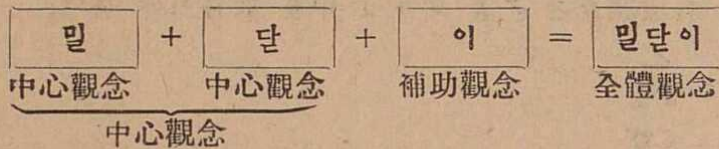
	甲	乙
밥+풀	밥풀	바풀
밥+알	밥알	바알
집+오리	집오리	지오리
입+맛	입맛	임맛
꽃+뇨	꽃뇨	끈뇨
빛+갈	빛갈	빗갈, 비갈
숫+불	숫불	숫불, 수불
꽃+떨기	꽃떨기	꽃떨기, 꼬떨기
낫+바닥	낫바닥	낫바닥, 나빠닥
꽃+냄새	꽃냄새	끈냄새
물+오리	물오리	무로리
물+양금	물양금	무양금
실+오래기	실오래기	시로래기
팻+막지	팻막지	피막지
밭+닐	밭닐	반닐
밭+머리	밭머리	반머리
밀+바닥	밀바닥	밋바닥, 미빠닥
솔+안	솔안	소안
솔+밭	솔밭	숫밭, 소밭
жат+알	жат알	자달
옷+안	옷안	오안
국+내	국내	궁내(國內)
국+경	국경	구경(國境)
만+딸	만딸	마딸

맡+아들——맡아들——마다들
 낮+잡——낮잡——나잡
 잣+주름——잣주름——자주름
 숲+새——숲새——숲새
 높+낮이——높낮이——높낮이, 높나지

c. 單語의 觀念의 單一化

單語綴을 表意化함에 語根만을 밝혀서 씀이 가장 完美한 方法인듯하나 實上은 그러
 치 않은 境遇의 것도 있다.

가령 속문(障子)을 우리가 미다지라고 한다. 이 미다지는, 徹底히 語根을 밝혀서
 적자면, 밀다라는 動詞 밀과 달다라는 動詞 달과가 綜合되어 밀달이 되고 거기에 또
 다시 이가 붙어서 밀달이가 된것이므로 반드시 밀달이로 써야 옳다고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케 된것이라 하여 그 個個의 觀念을 表示하기 爲하여 그러케 써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미다지는 밀달이에서 ㄹ이 죽고 또 ㄷ이 이字 우에서 口蓋音化하여 스으로
 變하여 미다지로 된것으로서 벌써 미다지 이것으로 속문(障子)이란 單一한 觀念을 나
 라내는 表意化된 말이니, 이런 種類의 말들이 前項(b)에서 말한 化合的 合成語다.
 이것을 구하여 밀달이로 적음은,

첫째는, 實際의 口音과 달라서 우리가 英語綴에서 받는 것과 같은 弊害를 받게 되고,
 둘째는, 一般 大衆 各自로 하여금 學習과 實用上에서도 字典의 負擔, 語源學的 負擔을
 共同으로 지게함이 되고,

셋째는, 밀달이로 써 놓은 글을 미다지로 發音하여 입을 때마다 恒常 그 속에 들어
 있는 밀, 달, 이 등의 여러 複雜한 觀念을 생각하게 되므로 도리어 한 單語로서의 全一
 한 表意化를 妨害케 된다.

그러므로 이따위 말들은 原則的 基本態度 (卜), (ㄱ)에 依하여 그냥 미다지라고 表
 음해 적어서 그 各個의 觀念을 한층치로 單一化하여서 表意化시킬 것이요, 부질없이
 表意化란 생각에 誤解하고 拘泥되어서 밀달이 이러케 적을 것이 아니다.

1. 化合的 合成語의 表記法

그러므로 化合的 合成語들은 아래와 같이 死音은 淘汰시키고 變轉音은 變轉된 現音
 에로 表記하여 表意化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아래에 적은 말들의 甲을 取함과 같다.

甲

코+뿔에——코뿔에——코뿔에——코뚜래
 곧+짚——곧짚——곧짚——고짚(제법)
 밀+달이——밀달이——밀달이——미다지

손+씨	손씨	손씨(手才)
불+손	불손	부손
나+무신	나무신	나막신
물+넘기	물넘기	무넘기
열+남웃	열남웃	여나웃

2. 轉成語의 表記法

口, 음, 암, 엄, 이, 애, 양, 암지, 앵, 앵이 — 에미, 양이, 앵이, 영이, 억다리, 억이—
 어기, 억지, 브, 아저, 기, 지……等과 이 밖의 또 갱이, 개, 갑이 — 가비, 댕이, 대기,
 박이 — 바기, 벽이 — 버기, 바리, 방이, 장이, 정이, 선이 — 서니, 팽이, 파기, 송이,
 거지, 쇠, 창, 창이, 보, 태……等과 같은 어떤 補助觀念이 動詞나 形容詞에 붙어서 名
 詞로 轉成된 것이나, 形容詞로 轉成된 것이나, 또는 名詞에 붙어서 그 意味를 變成한 것
 들中에는 그 轉成하는 境遇를 大體 두가지로 가를수 있으니, 한가지는

甲

자+口	잠(睡眠)
놀+애	노래(歌)

들의 甲과 같이 아주 恒久的으로 한 獨立한 觀念을 나타내는 것이요, 다른 한가지는

甲

깊+이	깊이
울+口	움
자+기	자기
깊+기	깊기

들의 甲과 같이 무슨 形狀이나 程度를 表示하기 爲하여서나, 또는 成句的으로 文法上
 格을 보이기 爲하여 다만 臨時로 名詞化시키는 境遇의 것이니, 앞엿 것을 固定轉成이
 라 하고 뒤엿 것을 變動轉成이라 한다.

그런데 이 中の 固定轉成語는 그 中心觀念과 補助觀念과를 區別해 적을것 없이 表音
 的으로 한데 어울려서 單一化시켜야 한다.

7. 固定轉成語의 表記例(甲을 取함)

甲

자+口	잠(睡眠)
얼+음	어름(氷)
걸+음	거름(步, 肥料)
웃+음	우슴(笑)
울+음	우름(泣)
물+음	무름(問, 問題)
묶+음	무꿈(束)
놀+음	노름(遊戲, 都博)
설+음	서름 구박, 悲哀)

졸+음	졸음	조름(睡眠)
살+암	살암	사람(人)
묻+엄	묻엄	무덤(墳墓)
죽+엄	죽엄	주검(死亡)
놀+이	놀이	노리(遊戲)
손+잡+이	손잡이	손자비
배앓+이	배앓이	배알이
크+이	크이	키
목+돌+이	목돌이	목도리
먹+이	먹이	머기(食物)
무겁+이	무겁이	무게(重量)
두루+막+이	두루막이	두루마기(周衣)
견느+이	견느이	견늬
막+애	막애	마개(栓)
들+애	들애	도래(송아지 고삐에 채우는 것)
메+애	메애	멍애
목+들+애	목들애	목도래
부치+애	부치애	부채
놀+애	놀애	노래(歌)
들+앙	들앙	도랑(溝)
골+앙	골앙	고랑(畎)
밭+앙	밭앙	마당(場)
잘+앙	잘앙	자랑(表彰)
곧+앙	곧앙	고장(地方)
갓+앙	갓앙	가장(邊緣)
웁+압지	웁압지	을감지(絞繩)
솥+앵	솥앵	소랭
웁+앵이	웁앵이	을개미(絞繩)
꽃+앙이	꽃앙이	교장이(串), 교창이
목+앙이	목앙이	모강이(頂)
가지+앙이	가지앙이	가장이
노르+앙이	노르앙이	노랑이(黃色, 黃色動物)
파르+앙이	파르앙이	파랑이(靑色)
짚+앵이	짚앵이	지팡이(杖)
하야+앵이	하야앵이	하양이(白色)
붉+앵이	붉앵이	불경이(紅色)
검+멍이	검멍이	거멍이(黑色)
누르+앵이	누르앵이	누형이(黃色)
늑+다리	늑다리	늑다리

뿌리+억이	뿌리억이	뿌리기(根)
뿌리+억지	뿌리억지	뿌럭지
굶+브다	굶브다	고프다(感餓)
앓+브다	앓브다	아프다(痛)
개+하지	개하지	강아지(丈子)
소+하지	소하지	송아지(犢)
말+하지	말하지	망아지(駒)
알+갱이	알갱이	알갱이
불+짚+갱이	불짚갱이	부지갱이
뒬+개	뒬개	뒬개
장작+잡이	장작잡이	장작가비
팔랑+잡이	팔랑잡이	팔랑가비
옆+댕이	옆댕이	옆댕이
목+양+댕이	목양댕이	모강댕이
등+대기	등대기	등대기(背)
굳+박이	굳박이	굳바기
숫+버기	숫버기	숫버기
악+바리	악바리	악바리
절름+방이	절름방이	절름방이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
깍+정어		깍정어
늪+정어	늪정어	늪정어
허풍+선어	허풍선어	허풍서너
지루+팽어		지루팽어
지루+팩어		지루팩어
검+승어		검승어
벌췌+승어		벌거승어
들+거지		들꺼지, 들꺼치
몬+거지	몬거지	모꺼지(會合)
설+거지		설거지(食器整理)
없+쇠		없쇠
돌+창		돌창
돌+창이		돌창이
늘+보		늘보
늘+태		늘태

甲	用例
자+口——잡	잡 <u>잡</u> 을 보고
가+口——감	걸어서 <u>감</u> 을 보고
졸+口——죤	先生은 가르치는데 <u>고박고박</u> <u>죤</u> 이 <u>웁</u> 느냐?
얼+口——엷	어름이 <u>엷</u> 을 보았다。
울+口——웁	우름 <u>웁</u> 이 <u>웁</u> 느냐?
살+口——쌌	사람의 <u>쌌</u> 이 이다지 <u>괴로우</u> 냐?
물+음——물음	남의 <u>물음</u> 을 뜻고도 <u>못</u> 들은 <u>체</u> 야 <u>할</u> 수 <u>잇</u> 나?
깊+이——깊이	물은 <u>깊</u> 이가 <u>열</u> 갈이나 <u>넘</u> 드라。
갈+이——갈이	<u>갈</u> 이가 <u>짜</u> 르면 <u>재</u> 미 <u>없</u> 는데。
넓+이——넓이	<u>넓</u> 이가 <u>얼</u> 마나 <u>되</u> 든가?
높+이——높이	<u>높</u> 이가 <u>높</u> 으면 <u>오</u> 르기 <u>힘</u> 든다。
오+지——오지	그는 <u>위</u> <u>오</u> 지를 <u>못</u> 하나?
알+지——알지	암만 <u>해</u> 도 <u>알</u> 지는 <u>못</u> 할 <u>일</u> 야。
막+지——막지	남의 <u>뜻</u> 을 <u>합</u> 부루 <u>막</u> 지 <u>마</u> 라。
먹+기——먹기	<u>잘</u> 익는 <u>감</u> 은 <u>먹</u> 기가 <u>좋</u> 다。
가+기——가기	<u>가</u> 기는 <u>간</u> 다 <u>마</u> 는, ……
알+기——알기	<u>알</u> 기 <u>쉽</u> 게 <u>말</u> 하 <u>면</u> , ……
잡+기——잡기	<u>미</u> 꾸러 <u>치</u> 럼 <u>잡</u> 기가 <u>어</u> 려 <u>우</u> 랴?

3. 擬聲語와 擬態語와의 表記法

動物의 우름소리나 性質, 動作, 形態等を 擬倣하여 된 副詞에 「이, 암이, 위, 우리」를 補助觀念을 더하여 名詞로 轉成된 말이 잇으니 이를러면,

개골+이——개골이
 더필+이——더필이

들과 같은 말이다。그런데 앞의 것을 擬聲語라 하고 뒤에 것을 擬態語라 한다。이런 말도 그 語源의 中心觀念과 補助觀念과를 區別해 적을것 없이 單一化시켜야 한다。

가. 擬聲語의 表記例(甲을 取함)

甲		
개골+이	개골이	개고리(蛙)
피골+이	피골이	피고리(鶯)
백국+이	백국이	백구기
매암+이	매암이	매아미, 매미(蟬)
기턱+이	기턱이	기러기(雁)
까치+이	까치이	까치(鵲)
까막+이	까막이	까마기(鳥)
때까치+이	때까치이	때까치
귀뜰+암이	귀뜰암	귀뜨라미(蟋蟀)
까막+위	까막위	까마귀(鳥)

딱딱+우리 — 딱딱우리 — 딱따구리(啄木鳥)
 따작+우리 — 따작우리 — 따짜구리

ㄴ. 擬態語의 表記例(甲을 取함)

甲

살살+이 — 살살이 — 살사러
 덕필+이 — 덕필이 — 덕피러
 삐쪽+이 — 삐쪽이 — 삐जू기
 빼쪽+이 — 빼쪽이 — 빼जू기
 품품+이 — 품품이 — 품꼬미
 덜렁+이 — 덜렁이 — 덜렁이
 덜덜+이 — 덜덜이 — 덜더러
 며벌+이 — 며벌이 — 며버러
 얼룩+이 — 얼룩이 — 얼루기
 코+갈+이 — 코갈이 — 코끼리(象)

이 밖에,

「두름이, 쟁이, 비답이」들도 「두루미, 제비, 비들기」로 써야 한다。

4. 單語에 意味 없이 表示된 音節의 整理表記法

두개 以上の 音節로 된 말에 있어서 現在의 發音과 어긋어지는 音으로 表示된 모든 音節은 그것이 歷史적으로 무슨 意味가 있게 쓰였을지라도 現在엔 그 意味를 認識치 못하게 된 것이거나 또는 히미하게나마 認識이 되는 것이거나를 勿論하고 모두 現在의 發音에 依하여 表音적으로 整理하여 單一한 概念을 表現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아래의 甲과 같이 적어야 한다。

甲

옴바 — 오빠(兄)
 압바 — 아빠(父)
 깨긋하다 — 깨끗하다(潔白하다)
 어깨 — 어깨(肩)
 어찌하다 — 어찌하다(如何히하다)
 어더하다 — 어더하다(如何하다)
 툷기 — 토끼(兔)
 툷잡이 — 토짜비
 깃굴어지다 — 거꾸러지다(被倒)
 꺾굴어지다 — 꺾꾸러지다(//)
 따뜻하다 — 따뜻하다(溫暖也)
 앓기다 — 아끼다(惜之)
 앓갑다 — 아깝다(可惜)
 앓가 — 아까(先時에)
 부끄럽다 — 부끄럽다(可羞也)

셋기	_____	새끼(藁繩, 椎子)
갓보다	_____	갓보다
잇보다	_____	이쁘다
긏보다	_____	긏보다
싯보다	_____	싯보다

D. 不規則 綴法の 許與

모든 單語綴은 古今語音을 勿論하고 오직 現代의 語音을 標準삼아 表音的으로 表記해야 이것을 表意化시키는 것이 앞에서 말한 綴語法の 原則的으로 세운 基本態度였다.

그러나 本音에서 아주 變轉된 音은 그 變轉된 音을 標準삼아 적으려니와, 그 中에도, 어떤 境遇에는 本音(或은 古音)대로 살어있고 또 어떤 境遇에는 變音으로 쓰여서, 同一한 單語가 둘 以上の 活音을 가진 것이라든지, 또는 제 音價를 窺할 發揮하다가도 單語와 單語와의 綜合關係라든가 또는 어떤 活用 關係에 이르러서는 쏘히 音이 變하거나 줄어지는 것들은 어찌할가?

여기에 對하여 어떤이는 本音으로만 一定하자는 이도 있고 또는 本音이나 變音이나 間에 어느 한가지로만 一定하자는 이도 있고 또는 略音에 있어서도 그 死略音을 그대로 表示하여 적자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런 境遇의 것은 表意化엔 多少 妨害가 있을지라도 不規則 綴法을 따루 設定하여 表音的으로 表記함이 絶對 表意化에 기울어져 어느 한가지로 一定하여 實際 自然語의 活音을 拘束함보다 좋을줄로 생각한다. 이를러면 이(齒——原音은 니)를 이^니로만 一定하여,

앞^니(前齒)를 앞^이——아^피 或은 아^비로,

어^금니(牙)를 어^금이——어^그미로 읽는다든가, 또는 그것을 니^로만 一定하여,

이^를 니^로,

새^이(新齒)를 새^니로 읽음은 不當한 일이며,

「알고(知하고), 알며(知하며), 아니(知하니)」의 알^의의 ㄹ을 언^케나 늘 表示한 結果에, 「아나? 아느냐? 아니?」들을

「알^나? 알^{느냐}? 알^니?」들로 發音上 不自然한 束縛을 줌은 不當한 일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不規則 綴法을 세워서 둘 以上の 音을 다 境遇에 따라 表記하기로 하며, 境遇에 따라 略音은 略하고 쓰기로 한다. 그런데 이 不規則 綴法은 不規則으로서의 또한 整然한 規則이 있어서, 實用上에 그리 過한 不便을 주지 않는다.

1. 語音의 二樣의 表記法

大體 이^음으로(이가 本音이냐? 니가 本音이냐?는 밝힐 必要도 없다) 始作된 말은 獨立으로 날때와 바침 없는 單語 밑에 合成될 때에는 이^음으로 發音되고 바침 있는 單語 밑에 合成될 때에는 니^음으로 난다. 이를러면 아래와 같다.

(獨立時에), (바침 없는 말 밑에서), (바침 있는 말 밑에서), (例外)

이(齒)。	새이(新齒)。	앞 ^니 , 웃 ^니 , 어 ^금 니。
웃(齒)。	싸 ^러 나 ^무 웃, 장 ^자 웃。	밭 ^ㅏ , 콩 ^ㅏ , 편 ^ㅏ 。
여우(狐)。	수 ^여 우, 새 ^끼 여우。	알 ^녀 우, 큰 ^녀 우, 작 ^은 녀우。

요(糲)。	새요, 아씨요。	솜뇨, 담뇨, 헌뇨, 신랑뇨。	보료
엿(飴)。	깨엿, 수수엿。	콩녘, 검은녘, 흰녘。	
약(藥)。	쥐약, 고약, 파려약, 가루약。	물냐, 병냐, 첩냐。	한약, 환약, 양약, 탕약。
입(口)。	새입(鳥髻), 쇠입, 개 입, 돼지입。	군님, 사림님, 말님。	
이슬(露)。	어머이슬。	맘니슬, 찬니슬, 풀니슬。	
잎(葉)。	나무잎, 오야주잎。	떡뵤, 풀뵤, 갈뵤, 콩뵤, 팻뵤。	나무뵤。
요강(溺強)。	사기요강。	강뵤요강。	
일(事)。	네일, 내일。	집닐, 들닐, 논닐, 밭닐, 공닐。	
임(主)。	새임(新主)。	형님。	아버님, 어머님, 조 카님, 아우님。

2. 變格活用語의 表記法

變格活用語는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變한 音은 變音대로, 略音은 略音대로 表記함이 좋다. 그런데 그 中에서도

「이러하다, 이러하고, 이러하지, 이러하게」들의 「하」에서 ㅏ가 줄어서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게」들과 같이 쓰이는 말의 影響을 받아서,

「이러므로, 이러면, 이러냐?, 이러니」들도 「이렇므로, 이렇면, 이렇냐?, 이렇니」들로 쓰이는가 많다.

이것은 「이렇」에 變서 表意化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른데에 應用하라는 類推的 心理作用의 所致다. 그러나, 그것은 音理에 크게 어긋러진다. 곧,

이렇므로 = 이럼므로, 이렇면 = 이럼면,

이렇냐? = 이런냐? 이렇니 = 이런니

로 發音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런 弊端을 막기 爲하여야는 ㅏ音이 省略되는 말에 있어서는,

이러하다 — 이렇다 — 이러랴와 같이 ㅎ을 活用部(助詞)에 合쳐서,

「다, 고, 지, 게, 소」들은

「랴, 코, 치, 케, 쓰」들로 적기로 特別한 方法을 돕이 좋다.

그리고보면 「이러하, 이렇, 이러」와 같은 種類의 것은 「이러하, 이러」와 같이 두가지로만 簡單히 處理되는 同時에, 같은 意味의 活用部(助詞)가 「다, 고, 지, 게, 소」와 「랴, 코, 치, 케, 쓰」와의 두가지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有氣音(Aspirate) ㅎ바침은 純 朝鮮語 中에서도,

많아서, 많으니, 많고, 많다, 많지, 많게。

좋아서, 좋으니, 좋고, 좋다; 좋지, 좋게。

놓아서, 놓으니, 놓고, 놓다, 놓지, 놓게。

떨어서, 떨으니, 떨고, 떨다, 떨지, 떨게。

찢어서, 찢으니, 찢고, 찢다, 찢지, 찢게。

들과 같이 母音이나 子音우에서 다 두루 聲價가 드러날수 있는 것에만 限하여 쓰고, 그 밖엔

可ㅎ다, 可ㅎ고, 可ㅎ지, 可ㅎ게。

하얏다, 하얏고, 하얏지, 하얏게, 하야니, 하야면。

들과 같이 漢字語나, 純朝鮮語나를 勿論하고, 어떤 境遇엔 그 聲價가 드러나고 어떤 境遇엔 안 드러나는 것들과 같은 말들은,

可랴, 可코, 可치, 可케。

하야랴, 하야코, 하야치, 하야케, 하야니, 하야면。

들과 같이 一切로 ㅎ바침을 하지 않게 된다。아래에 各種 變格活用語의 例를 보이려 한다。(語例는 各各 한두개씩 만 드니 增例는 本誌 第三號에 실린 이윤재님의 「變格活用の 例」를 參照하시기 바란다。)

(1). 「하」變格 (「하」가 略됨)

그러하다, 그러하고, 그러하지, 그러하게, 그러하오。

그러랴, 그러코, 그러치, 그러케, 그러쏘。

마땅하다, 마땅하고, 마땅하지, 마땅하게, 마땅하오。

마땅랴, 마땅코, 마땅치, 마땅케, 마땅쏘。

便安하다, 便安하고, 便安하지, 便安하게, 便安하오。

便安랴, 便安코, 便安치, 便安케, 便安쏘。

이러하므로, 이러한, 이러하면, 이러하니, 이러하냐, 이러하오,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이런, 이러면, 이러니, 이러냐, 이러오, 이렇습니다。

(2). 「ㅎ」變格 (ㅎ이 略됨)

좋으니, 좋으면, 좋으나, 좋으니라, 좋은。

조니, 조면, 조냐, 조니라, 존。

놓으니, 놓으면, 놓으므로。

노니, 노면, 노므로。

놓아라, 놓았다, 놓았니, 놓았소。

놉라, 놉다, 놉니, 놉소。

(3). 「ㄹ」變格 (ㄹ 上에서 ㄹ이 略됨)

을다, 을고, 을지, 을며, 을어서。

우나니, 우나, 운, 우느니라, 우시다。

길다, 길고, 길지, 길며, 길어서。

기니, 가나, 긴, 기니라, 기시다。

알다, 알고, 알지, 알며, 알어서。

아나니, 아나, 아나, 안, 아느니라, 아시다。

(4). 「ㄱ」變格 (母音上에서 ㄱ이 略됨)

잇다, 잇고, 잇지, 잇게。

이으니, 이어라, 이으며。

낫다, 낫고, 낫지, 낫게。

나으니, 나어라, 나으며。

붓다, 붓고, 붓지, 붓게。

부으니, 부어라, 부으며。

(5). 「ㅡ」變格 (어头上에서 ㅡ가 略됨)

끄다, 끄고, 끄지, 끄게, 끄며。

끄어서—꺼서, 끄어라—꺼라, 끄었다—껏다

전느다, 전느고, 전느지, 전느게, 전느며。

전느어서—전너서, 전느어라—전너라,

크 , 크고, 크지, 크게, 크며。

건느었다—건넜다。

크어서—커서, 크어라—커라, 크었다—켰다。

(6). 「ㄷ」變格 (母音上에서 ㄷ이근로 變換)

묻다, 묻고, 묻지, 묻게。
듣다, 듣고, 듣지, 듣게。
걸다, 걷고, 걷지, 걷게。

물으며, 물어라。
들으며, 들어라。
걸으며, 걸어라。

(7). 「ㄴ」變格 (母音上에서 ㄴ이「우」로 變換)

눅다, 눅고, 눅지, 눅게。
곶다, 곶고, 곶지, 곶게。

눅으며—누우며, 눅어라—누워라。
곶으며—고우며, 곶아서—고와서(「와」는 文字慣例에 依하여 「와」로 적음)
사람답으며—사람다우며, 사람답어서—사람다워서。

사람답다, 사람답고, 사람답지, 사람답게。

(8). 「ㄹ」變格 「어」가 「러」로 變換)

이르다, 이르고, 이르지, 이르게, 이르면。
푸르다, 푸르고, 푸르지, 푸르게, 푸르면,
누르다, 누르고, 누르지, 누르게, 누르니。

이르어서—이르러서, 이르었다—이르렀다。
푸르어서—푸르러서, 푸르었다—푸르렀다。
누르어서—누르러서, 누르었다—누르렀다。

(9). 「르」變格 「어, 아」上에서 「르」의 「ㄹ」가 略되고 ㄹ이 脫함)

호르다, 호르고, 호르지, 호르게, 호르면,
호르니。
빠르다, 빠르고, 빠르지, 빠르게, 빠르면,
빠르니。
오르다, 오르고, 오르지, 오르게, 오르면,
오르니。

호르어서—홀러서, 호르다—홀렀다。
빠르어서—빨러서, 빠르었다—빨렀다。
오르아서—올라서, 오르았다—올랐다。

(10). 「여」變格

하여서, 하였다, 하였고, 하였지, 하여라。
되여서, 되였다, 되였고, 되였지, 되여라。
쳐여서, 쳐였다, 쳐였고, 쳐였지, 쳐여라。

해서, 했다, 했고, 했지, 해라。
돼서, 됐다, 됐고, 됐지, 돼라。
챙서, 챙다, 챙고, 챙지, 챙라。

(但). 入變格, ㅂ變格, ㄷ變格等은 ㄱ, ㅋ, △等을 다시 使用하여 이 變格을 없이 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註四). 用言의 敘述終止格에는 「가오, 갠오, 갠소」와 같이 바침 없는 말에는 「오」가 붙고 바침 있는 말에는 「오오」나 「소」가 붙는다. 그러므로 「그러하오」는 「그러하」의 終音節에 바침이 없으므로 「오」가 붙었지만 「그러하」의 「ㅏ」가 줄어서 「그렇」가 된 뒤에는 바침이 있게 되어서 「소」가 붙어 「그렇소」가 된다. 그런 것인데 「ㅎ」이 助詞로 下合하여서 「그러쏘」로 된다。

e. 漢字音의 表記法

이것은 다른 機會로 밀고 여기엔 略한다. 그런데 이것도 亦是 純朝鮮語의 表記法에 서와 마찬가지로 그 原則的 基本態度 (ㅏ), (ㅑ)에 基準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모든 歷史的 死音을 버리고 現在의 活音을 取한다는 것만을 우선 말해야 한다.

(이 論文中 綴字法 處理에 關한 것은 筆者의 理論에 根據한 私案이란 것을 附言한다.……筆者)

俗樂歌詞

옛날 歌謠가 우리 語文 研究에 많은 資料가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실린 漁父歌는 崖澗 權憲奎氏가 보내어 준 것이다. 原作의 意思를 尊重하는 意味에서 다만 句節만 떼고 綴字는 본 그대로 둔 것이다. 讀者 여러분께 이러한 歌詞가 잇거든 本 編輯部로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

漁夫歌

雪鬢漁翁이住浦間하야서
 自言居水 | 勝居山이라하나다.
 배떠라배떠라
 早潮 | 纔落거늘晚潮 | 來하나다.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一竿明月이亦君恩이샷다.
 靑菰葉上에涼風이起키늘
 紅蓼花邊에白鷺 | 還하나다.
 닳들어라洞庭湖裏에駕歸風호리라.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一生踪跡이在滄浪하두다.
 盡日泛舟烟裏去하고
 有時搖棹하야月中還하낏다.
 이어라이어라我心隨處自忘機호라。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一江風月이趁漁船하두다.
 萬事를無心一釣竿하오니
 三公으로도不換此江山이로다.
 돛달아라돛달아라帆急하니
 前山이忽後山이로다.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生來에一舸로趁隨身호라。
 東風西日에楚江深하니
 一片苔磯오萬柳陰이로다.
 이피라이피라
 綠萍身世오白鷗心이로다.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隔岸漁村이兩 | 家一로다.
 一尺鱸魚를新釣得하야

呼兒吹火荻花間호라
 배세어라배세어라
 夜泊秦淮하야近酒家호라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一瓢에長醉하야任家貧호라
 落帆江口에月黃昏키들
 小店에無燈欲閉門이로다.
 돛지어라돛지어라
 柳條에穿得錦鱗歸로다.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夜潮留向月中看호리라。
 夜靜水寒魚不食이어를
 滿船空載月明歸노라
 배매어라배매어라
 釣罷歸來에繫短篷호리라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繫舟猶有去年痕이로다.
 極浦天空際一涯하니
 片帆이飛過碧琉璃로다.
 아외어라아외어라帆急하니
 前山이忽後山이로다.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風流未必載西施니라。
 一自持竿上釣舟히오므로
 世間名利盡悠悠 | 로다.
 이피라이피라
 桃花流水鱖魚肥하두다.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欸(애)乃一聲山水綠하두다.
 江山晚來堪花處에
 漁翁披得一簑歸로다.
 돛덜어라돛덜어라
 長江風急浪花多하두다.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斜風細雨不須歸니라
 濯纓歌罷汀洲靜키들
 竹徑柴門猶未關이로다.
 서사라서사라
 繫舟猶有去年痕이로다.
 지곡총지곡총어사와어사와
 明月清風一釣舟 | 로다.

逸

話

壯快한 南將軍

金 克 培

남이장군(南怡將軍)은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외손(外孫)이었다. 부친되는 의산군 남휘(宜山君南暉)는 일즉이 세상을 버리고 모친되는 정선공주(貞宣公主)의 손에 품게 길러났었다.

장군은 임금님의 외손이며 공주의 외아들로 쥐면 터질가 불면 꺼질가하여 귀염이 무쌍하고 모든것에 조금도 그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만한 처지에서 교만한 마음도 있을 것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은 하지 아니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장군은 워낙 의지가 튼튼하고 총명이 특이하야 학문이 숙성할뿐 아니라, 무예(武藝)를 정통하여 그때 소년무사(武士)에 으뜸이 되었었다.

어려서 사략초권(史略初卷)을 배울 때의 일이다.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하고 읽든 중세 옆에서 앉아 듣든 사람이 하두 귀엽게 생각하여 물어보았다.

『너 천황씨의 얼굴이 어떤줄 알겠니?』

『네, 수염이 많이 낫지요.』

『너 어떡세 아나 천황씨가 수염이 많은 줄?』

『당신은 천황씨가 수염이 없는줄 어찌 알으십니까?』하고 어린 남이는 이같이 대답하였었다. 어릴적부터 영리하고 능청스러움이 이와 같은 남이는 나이 열여섯살이 되었다. 체격으로나 재주로나 어대토 보든지 훌륭한 남자이었다. 정선공주는 며느님의 재미를 보고저하여 혼처를 구하는 중이었었다.

어느때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궁중에 잔치를 베풀고 종실친척(宗室親戚)을 모아가시고 놀든 것이다. 이때 정선공주는 아들 남이를 데리고 갔으며 그 형님되는 정안공주(慶安公主)는 시집 조카딸인 그때 우의정(右議政) 권립(權孳)의 딸을 데리고 갔었다. 그런데, 남이는 무사의 씩씩한 기상이 그 좌석에 제일이요, 권정승의 딸도 어여쁜 태도와 행동범절이 모든 여자중에 특별히 뛰어났었다. 그래서 그같이 엄숙한 좌석이거마는, 이 두 남녀는 틈틈이 눈이 가면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면 눈이 오게되어 서루 사모하는 마음에서 애정의 착이 트기 시작하였다. 이날 연회는 해동같아야 마치고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남이와 권소저(權少姐)도 말없는 중에 뒤의 기약을 머물르고 헤어졌었다.

『애, 오늘 연회에 왕공귀족(王公貴族)의 딸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중에 네 마음에 적당하다고 생각나는 이가 없드냐?』 하야 정선공주는 아들 남이를 앞에 앉혀놓고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제 마음에는 권정승의 따님이 가장 합당하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에도 그럴성싶다.』

공주는 이와같이 말하고 이튿날 즉시 중매를 놓아 권정승집으로 통혼을 하였다.

권정승은 이미 남이의 인격다운 것을 들어 안 터이라, 매우 기뻐하여 남이의 사주(四柱)를 보내달래서 그때 사주 잘보기로 유명한 최감역(崔監役)에게 물어보았다. 최감역은 남이의 사주 적어 온 것을 보고 고개를 기우뚱기우뚱하더니,

『이 사주가 제법 좋지 못합니다. 한때의 부귀영화(富貴榮華)는 훌륭하겠습니다마는 수한이 三十을 넘지 못하겠으니, 혼인

을 파의하심이 좋을 줄 압니다』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권정승은 깜짝 놀란다. 할일없다, 혼인은 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남이와 권소저의 사이에는 애정을 실험치 못하고 낙망에 돌아가고 만 것이다.

그뒤부터 권소저는 시늬시늬 앓기 시작하여 일편의 멍힌 마음에 필경 일어나지 못할 줄 생각하고, 침석에 누워서 마주막으로 부끄러움을 헤아리지 않고 편지 한장을 써서 몸종을 시켜 남이에게 보내었었다.

『저는 당신을 사모하여 백년가약을 맺고 영화롭고 재미있는 생활을 하여볼가 하였드니, 요망한 복술장이(卜術匠)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사오니 저는 이제도 이 세상을 하직하거나와 당신은 좋은 배필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시다가, 이 다음 황천에 나가서 만나 뵈옵기를 바라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남이는 하두 가엾고 울칠한 생각이 나서, 아무 걱정도 없이 말을 끌어내어 라고 권정승 집을 바라보고 나섰다. 그래서 남이가 권정승 집 대문 앞에 당도하자, 색시가 죽었다고 며들며 곡성이 랑자하였다. 남이는 말에 내려서 그집 하인을 불렀다. 권소저의 죽은 까닭을 자세히 물어보고는,

『내 말을 타고 오느라니 어떤 계집하인이 함저박에 무엇을 청보로 덮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우에 분면홍의(粉面紅衣)한 여귀(女鬼)가 앉았드니, 필경에 그 여귀의 작란인가 싶은즉, 내가 들어가면 살려낼 수가 있으니, 네 안악에 들어가서 여쭙어라.』

이와같이 말하였다. 남이는 어떠한 자신이 있었는지, 권소저가 자기로 인하여 죽었다고까지는 안 것이다. 허인은 대감

께 여쭙었다. 그래서 남이는 안방으로 들어기게 되었다. 큰 기침 한번을 「에헬」하고 문을 연즉, 여귀는 다라나고 소저는 깨어나서 남이를 잠간 바라보기만 하고 고개를 돌린다.

권정승은 크게 기뻐하였다. 남이를 데리고 사랑으로 나와서 잠시 이야기하는 동안에, 소저가 또 죽었다고 한다. 남이를 청하여 들어간즉 소저는 또 살아난다. 남이가 나온즉 소저가 죽고 남이가 들어간즉 살아나게 되어 수상차나 남이가 권소저의 방에를 풀방구리에 쥐 나들듯이 들락날락하였었다. 권정승은 하두 이상하여 부인과 의논하고 남이로 사위를 삼고 말았었다.

남이는 열일곱살에 무과(武科)를 보아 장원급제(壯元及第)하였다. 명망이 장안에 떨치든 것이다. 이때 길주(吉州)사람 이시애(李施愛)가 반기(反旗)를 들어 북청만령산(北靑萬嶺山)에 웅거하여 많은 무리를 데리고 형세가 매우 강성하였었다. 함경도(咸鏡道)는 산이 많아 말세가 험하므로 용이하게 치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담한 남이장군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선봉대장(先鋒大將)으로 나갔었다. 우대장(右大將) 어유소(魚有沼)와 한가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만령산 북편에 당도하였었다.

모든 군사도 하여금 풀빛과 같은 푸른 옷을 지어 입고 적군의 뒤로 돌아 높은 봉에 올라서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적군을 내려치니, 이시애는 뜻밖에 신병(神兵)을 만난것 같았다. 미처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다라나다가 경성(鏡城)에서 잡혀 죽었었다.

남장군은 이시애의 난리를 평정한 뒤에 전주(建州)의 도적 이만주(李滿住)를 쳐서 죽이고, 그길로 만주(滿洲)의 옛땅을

찾고저하여 군사 三千명을 거느리고 이만 주의 남은 무리를 지쳐 들어갔었다. 선춘령(先春嶺)에 이르러 큰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가,

『朝鮮大將南怡가 敵兵을 쳐서 물리치고 이끈까지 회복하였다。』고 큼직한 글자로 쓰고 또 한편에는 詩를 지어 기록하였었다.

『백두산 들은 칼을 갈아 닳아지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이어 없을세라
사나이가 二十에 나라를 평정치 못하면
이뒤에 뒤라서 대장부라 하리오

原 作

白頭山石은 磨刀盡이요
豆滿江波는 飲馬無라
男兒二十에 未平國이면
後世에 誰稱大丈夫리오』

이와같은 글만 보아도 장쾌(壯快)하기가 한량없는 것이다.

남장군이 만주에서 개가(凱歌)를 부르고 돌아오매 임금님의 사랑하심과 백성들의 환영함이 비할데 없이 되었었다. 그래서 소인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가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스물 여덟살 되던 때에 간신 유자광(柳子光)의 참소에 역적모의(逆賊謀議)를 한다는 죄명으로 예종대왕 睿宗大王)의 친국(親鞠)을 당하여야 무릎정강이 뼈가 부셔졌었다.

『강순(康純)이도 역모(逆謀)를 가치 했 습니다。』 하는 남장군의 공초(供招)에 八十 늙은이 강순이가 국문(鞠問)하는 마당에 나왔었다. 달고침을 건디지 못하여 이가 다 빠져 오물어진 입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 뼈가 부러지고 피루성이를 하고 있던 남장군은 꺾꺾 웃으며,

『나와 같은 소년도 죽거든, 너같은 늙정 이야 죽은들 아까울 것이 무에냐?』하고 앉은자리에서 희담(戲談)하듯이 하였었다. 당초에 강순이와 남장군은 노소블게하고

막역의 친구로 지냈든 것이다. 강순이 죽을때에 남장군을 돌아보고,

『네 무슨 원수로 나를 무소(誣訴)하여 죽게 하느냐』 하고 원통한 말을 하였었다. 남장군은 태연한 기색으로 빙그레 웃으며,

『원통하고 무죄한 것은 네나 내나 일반이 아니냐? 네가 이제 일국의 재상(領議政)으로 잇어서 나의 무죄한 것을 알면서 말한마디 않고 구원치 아니하니 네 죽어도 원통할 것이 없느니라。』 하여 남장군은 죽을 때에도 능능한 기색이 소인의 무리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였었다.

俗 談 語 彙

(1)

가 部

- 가가 기동에 입춘(立春)이라.
- 가까운 대를 가도 점심밥을 싸 가지고 가라.
- 가까운 무당보다 먼대 무당이 영하다구.
- 가난 구체는 나라도 어렵다지.
- 가는 길에 여우가 건너가면, 사망이 있다나.
- 가든 날이 장날이다.
- 가당 잎에 불붙듯 한다.
- 가랑 잎으로 눈을 가리고 아웅한다.
- 가랑 잎이 슬있더라 바스턱거된다구한다.
- 가래뿔 증놈 같다.
- 가루는 칠스록 고와지고, 말은 할스록 좋지 않다.
- 가루 뒹고 세루 된다.
- 가루 지나 세루 시나.
- 가루 찢고 세루 찢는다.
- 가리 마가 보는 죽이다.
- 가리산 지러산 한다.
- 가림은 잇어야 이복이라 한다.
- 가림자가 된다.
- 가마가 검기로 밤도 검겠다.
- 가마귀가 검어도 살은 아니 검다.
- 가마귀가 알 물어다 감추듯 한다.
- 가마귀가 오디 따라는 격이다.
- 가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 가마밀이 노구 밀 검다구.

本 會 記 事

1932年 12月 10日 下午 三時에 本會館에서 月例會를 열고 「一般聲音學」에 對한 李克魯씨의 講演이 있었다。

1932年 12月 22日 下午 七時에 本會館에서 申明均씨의 司會下에 臨時總會를 열고 李克魯씨로부터 本會 綴字委員會의 經過報告가 잇은 뒤에 이번 冬期放學時를 利用하여 特別히 綴字委員會를 하자는 것을 議論하며, 時日은 十二月 二十六日로 來年 一月 四日까지 十日間으로 定하고, 會議 場所는 開城府 高麗青年會館으로 定하고, 費用은 孔濯씨의 招待를 感謝히 받기로 하고, 委員增選에 들어 李萬珪, 李世楨, 李常春, 李鐸, 李鉞, 金善琪 六氏가 被選되다. 李鐸, 李世楨 兩氏의 入會가 通過되다。

1932年 1月 14日 下午 三時에 本會館에서 月例會를 열고 『朝鮮말과 學術語』에 對한 講演이 있었다。

朝鮮語綴字統一委員會

1932年 12月 27日 午後 三時부터 開城府 高麗青年會館에서 綴字委員會를 열었다. (當局의 認可關係로 預定보다 하루가 늦었음) 十八人 委員中에 三人이 缺席되었다. 司會 申明均씨의 開會辭가 잇고 李克魯씨로부터 綴字委員會를 滿二年동안 六十九回 二百十一時間을 열었다는 그 동안의 經過報告가 잇은 뒤에 申明均 李常春 兩氏를 議長으로, 崔鉉培, 李熙昇, 李克魯 三氏를 提案說明委員으로, 金善琪, 李鉞 兩氏를 記錄委員으로 選定하였다. 會議時間은 一月 四日까지 每日 午前 九時半부터 下午 一時半까지, 下午 三時半부터 六時까지 二回 共七時間으로 定하

고 綴字案을 逐條討議하기 시작하였다。

預定대로 큰 變動이 없이 進行하여 十八 委員이 九日 동안 十七回 五十九時間에 九十 項目을 討議 決定하고, 修整委員으로 權惠奎, 金允經, 金善琪, 李克魯, 李允宰, 李熙昇, 申明均, 張志暎, 鄭寅燮, 崔鉉培 열분을 選定하여 原案을 整理한 뒤에 또 다시 正式으로 委員會를 召集하여 協議 決定하기로 하고, 委員一同이 萬歲三唱으로 閉會하니 때는 一九三三年 一月 四日 下午 五時가 되었다。

감사함을 드림

이번 開城府에서 朝鮮語綴字統一委員會가 열릴 때에 그 會의 全費用을 負擔하여 주신 孔濯씨와 委員歡迎晚餐招待會를 열어 주신 開城 有志諸氏와 委員慰勞晚餐招待會를 열어 주신 高麗青年會館理事長 黃中顯氏와 모든 便利를 爲하여 애써 주신 各 新聞社支局과 會議 場所를 빌려 주신 高麗青年會와 및 歲末에 多忙함을 不拘하고 菊割 三十頁에 가까운 「한글맞춤법統一草案」을 無料로 印刷하여 주신 漢城圖書株式會社에 對하여 朝鮮語學會 會員一同은 衷心으로 感謝함을 마지 아니하나이다。

開會中에 大阪 계신 구에이쥬(電文은 「가나」로 クエイジユ라 하였음)氏의 祝電과, 나주 박정리 계신 최항철氏의 『산마들 기초로 아름다운 통이를 비나이다』라 한 고마운 祝辭를 받았다。

寄贈 받은 雜誌

- △佛敎(一, 二, 三月號) △宗教時報(一, 二月號)
- △아이생활(一, 二月號) △孤兒(一, 二月號)
- △天道教會月報(一, 二月號) △啓明(24號)
- △三千里 二月號) △新生(二月號) △前線(第七號)
- △青年(二月號)

本號正誤

은 그 법 問 는誌 의 힌 기 도 러 협

正	誤	頁	行
이러기+다스기 古+	이러기+다스기 古+	265	卷頭
用言	用語	265	2
序論	床論	265	7
날아	닐아	265	17
壇朝도부러	壇朝도부러	265	25
整理할	整理한	266	17
語源的몇	語源的몇	266	32
그러나	그러나	268	14
形式的	形成的	268	18
形式으로	形成으로	268	19
Tense	Tence	268	24
이뤄서	일워서	268	35
배품끝	배끝	270	28
첫재이름끝	첫재이름끝	271	30
合成觀念	全體觀念	282	14
그러므로	그러므로	282	27
늑+억다터	늑억+다터	284	末
보고	브고	286	2
보고	브고	286	3
개끝이	개끝이	286	23
빼꾸기	빼꾸기	287	8
表現하도록하여야	表現하도록하여야	287	21
크다	크	291	2
호르었다	호르다	291	19

그 바
카도,
全然한
昔亂한
있지마
기, 本
集으로
本誌의
로 必
討論
。 그
많이

印刷
發行

每冊
六十錢

四二

均

四二

華

距
十月
는世

세계에 들도없는 寶物입니다。世宗때의 그 原本 四十餘頁이나 되는 것을 寫眞版으로 박아내어, 實費 二十錢(外郵稅二錢)에 提供코져 하오니, 이 千金難購의 重寶를 여러분 案頭에 備置하시기를 바라나이다。

發賣所 京城府安國洞一五三 中央印書館 攝替京城一二一七八番

印刷者 李 炳 華
京城府 水標町 四二
印刷所 新 少年社印刷部
京城府 水標町 四二
發行所 朝鮮語學會
電話(光)一三九九番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京城府 安國洞 一五三
總販賣所 中央印書館
電話(光)一一九三番
振替京城一二一七八番

綴字法에 對한 本誌의 態度

朝鮮語 綴字法의 完全無缺한 統一案이 確立한 뒤에, 本誌가 나오는 것이, 그 바른 順序일 것이다. 그러나, 綴字法 統一이란 것은 다른 나라 말의 例를 볼지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時間으로 數百年, 사람으로 無數한 사람이, 아무 整然한 法則이 없이 써오든 우리 말의 綴字法을 統一함에는, 여러 가지 複雜하고 錯亂한 問題가 많다. 그리하여, 本會로서는 年來로 그 統一案 作成에 애쓰는 중에 잊지마는, 그 案이 實際로 成立하려면 아직도 얼마나한 時日을 要할 것이다. 그런데, 本誌에 關한 世間의 要求는 緊切함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標準으로의 形式을 가지고, 이 『한글』이 出現한 것이다.

그러므로, 本會의 議決에 좇아, 編輯의 全責任을 지신 李允宰氏가 위선 本誌의 한글 綴字를 校正하기로 하며, 學術에 關한 各人의 主張하는 部分만은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本誌를 通하여 綴字法에 關한 研究가 많이 發表되며 討論되어서, 하더라도 속히 統一案이 成立되기를 期待하자 함이 本會의 決議였다. 그리한즉, 天下 同志와 讀者 여러 분은 이 앞으로, 研究 發表, 意見 討究等에 많이 協同하여, 이 至重한 事業에 完成에 힘써이 잇기를 바란다.

訓民正音原本

定價 二十錢 (送料二錢)

距今 四百八十六年前 丙寅 九月二十九日(陽曆換算則 十月二十九日)에 頒布되어, 오늘까지 우리가 使用하는 世宗大王 御製 訓民正音은 우리 朝鮮사람이 가진 世界에 둘도없는 寶物입니다. 世宗때의 그 原本 四十餘頁이나 되는 것을 寫眞版으로 박아내어, 實費 二十錢(外郵稅二錢)에 提供코져 하오니, 이 千金難購의 重寶를 여러분 案頭に 備置하시기를 바라나이다.

京城府安國洞一五三
發賣所 中央印書館
振替京城一二一七八番

昭和八年三月七日印刷
昭和八年三月十日發行
「한글」第七號

定價 { 一部 十五錢
六個月 八十錢
一箇年 一圓六十錢

編輯兼 京城府 水標町 四二
發行人 申 明 均
印刷者 京城府 水標町 四二 李 炳 華
印刷所 京城府 水標町 四二 新 少年社印刷部
發行所 京城府 水標町 四二 朝鮮語學會
電話(光)一三九九番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京城府 安國洞 一五三
總販賣所 中央印書館
電話(光)一一九三番
振替京城一二一七八番

昭和八年三月一日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五月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再 版}

朝鮮語綴字問題

한글 第三號 特輯號

朝鮮語綴字問題는 지금 社會化하였다. 우리가 이것은 결코 等閒視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로바베 그 法則을 알아서 實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글綴字에 관한 各大家의 論文을 蒐集하여, 本誌의 特輯으로 發行하였으니, 이것이 한글綴字法을 研究하는 이에게 한 指針이 될 것이다. 堂堂 四六倍版 七十餘頁에 實費 貳拾五錢(郵料并)에 提供한다. 發行 未幾에 賣盡되고, 再版하여 또 殘存이 僅少. 곧 注文하시기를.

內容概要

周時經 先生 記念

한헌샘 스승님 (時調).....	가	림
周時經 先生傳.....		
周 스승님을 생각함	갑	메

世界各國의 文字運動

日本 國字運動의 一瞥	李	熙	昇
歐美列強의 綴字 改正論	李		鉀
中國은 表意文字에서 表音文字로	李	克	魯
土耳其의 文字革命	李	允	宰
朝鮮文 表記法의 變遷	金	允	經

한글 綴字의 理論과 實際

綴字法의 合理化.....	申	明	均
綴字法의 原理.....	金	善	琪
새말침에 관한 諸 問題의 解決과 그 實例의 總覽	崔	鉉	培
變格活用의 例.....	이	윤	재
中間音의 過去와 現在.....	김	운	경